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7월 1일(수) 14:30 이후

담 당 : 회원관리팀 구취혁 부장
(990-7073)

부산상의, 회원기업 애로해소 위한 기업현장 방문

양재생 회장, 친환경 조선기자재 대표기업 ㈜파나시아 방문

▶ **친환경 선박 기자재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현장 애로 청취**
▶ **실증 인프라 · 전문인력 · 신항 배후단지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논의**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7월 1일(수) 오후 2시 30분, 친환경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파나시아를 방문해 이수태 회장과 함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글로벌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부산을 대표하는 친환경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부산시 기업정책협력관과 기업 옴부즈맨도 동행했다.

간담에서 파나시아 관계자는 친환경 · 스마트 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공동 실증 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대형 해운사(HMM)의 부산 이전과 연계한 '해운사-조선소-기자재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수주 확대에 대응한 신항만 배후단지(생산 · 야적 통합기지) 확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은 "친환경 기자재는 개발 이후에도 선주와 조선소, 선급의 신뢰 확보를 위한 장기 성능 검증과 국내외 인증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기자재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생산 · 보관 · 시험을 위한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항 배후단지 내 생산 · 야적 통합기지를 확보하면 물류비 절감과 제품 손상 방지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파나시아는 세계시장에서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기업” 이라며, “친환경 조선기자재 산업은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만큼, 실증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신항 배후단지 확보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제를 적극 발굴해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된 ㈜파나시아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배출가스 저감장치(Scrubber・SCR), 탄소포집장치(OCCS) 등 친환경 선박 기자재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37개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친환경 조선기자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오늘 건의된 내용은 부산상공회의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와 부산시 기업정책협력관이 협업해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1. 회원기업 방문 개요 1부.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방문 CEO 간담회 개최

□ 개최목적

회원기업의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회원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개최개요

○ 방문기업: (주)파나시아 ·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 방문일시: 2026. 7. 1.(수) 14:30

○ 방문장소: ㈜파나시아 회의실 및 생산현장

○ 참석인원: 12명

기 관 명	참 석 자		
부산상공회의소(7명)	• **양재생** 회장 • **심재운** 본부장 • **박판정** 협력관	• **정현민** 상근부회장 • **강주현** 본부장	• **이규중** 사무처장 • **박대선** 옴부즈맨
㈜파나시아(5명)	• **이수태** 회장 • **이규림** 상무	• **정진택** 부회장 • **정욱한** 팀장	• **이민걸** 사장

□ 세부일정(안)

시간	행사내용	비고
14:20	▷ (주)파나시아 도착	
14:30 ~ 14:40 [10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부산상의
14:40 ~ 14:50 [10분]	▷ **환영사 및 인사말** · 이수태 회장 환영사 · 양재생 회장 인사말	
14:50 ~ 15:00 [10분]	▷ 회사소개	(주)파나시아
15:00 ~ 15:30 [30분]	▷ **간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15:30 ~ 15:35 [5분]	▷ 기념촬영	
15:35 ~ 16:00 [25분]	▷ 생산현장 투어	

㈜파나시아 기업현황

1. 대표자 프로필

☐ 성 명: 이수태 회장

☐ 학 력

- 한국해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석사(2004)
- 일본 와세다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2000)
-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1998)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사(1981)
- 울산 학성고등학교 졸업(1974)

☐ **경영철학:** 기술경영, 인재경영, 4先 경영(선견,선수,선제,선점)을 바탕으로 사람을 기업 성장의 중심에 두고 인재를 육성하며, 핵심기술 개발과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경력사항

이수태 회장은 1989년 범아정밀엔지니어링을 창업한 이후, 선박 및 산업설비용 계측기 제조를 기반으로 조선 기자재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며 회사를 성장시켰고, 현재의 ㈜파나시아를 친환경 조선기자재 및 에너지설비 분야 전문기업으로 발전시킨 창업주입니다.

또한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기업'이라는 사명 아래, 파나시아를 첨단 기술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습니다.

2. 회사 일반현황

회사명	㈜파나시아		
영문명	PANASIA CO., LTD.		
대표자	정진택, 이민걸		
사업자등록번호	603-81-29289		
설립일	1989년 10월 창업 (1996년 7월 법인전환)		
본사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대표전화	051-831-1010		
홈페이지	www.worldpanasia.com		
주요 업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친환경 기자재 및 환경설비 제조		
주요 제품	Scrubber, SCR, BWTS, OCCS, FGSS, 계측·제어시스템, 수소추출기 등		
임직원 수	356명		
자산총계(25년)	3,096억원	**매출액(25년)**	1,953억원

3.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89	범아정밀엔지니어링 설립
1996	범아정밀㈜ 법인 전환
199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0	녹산산업단지 신공장 이전
2007	㈜파나시아로 사명 변경
2011	중국법인 설립(상하이)
2012	일본법인 설립(오사카)
2014	미음 사옥 본점 이전
2016	유럽법인 설립(네덜란드 로테르담)
2019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 수상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2020	미음산단 제2공장 준공 & 무역의 날 3억불 수출탑 수상
2023	미음산단 제3공장 준공 & 중견기업 확인
2025	국가산업대상 환경경영부문 대상 (3년 연속 수상)

4. 주요 제품 및 사업영역

구분	내용
황산화물 저감장치 (Scrubber)	선박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저감하여 IMO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BWTS)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유해 수중생물을 처리하여 해양생태계 보호 및 국제 환경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설비
탄소 포집·저장 장치 (OCCS)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_2)를 포집·저장하여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친환경 설비
FSS (Fuel Supply System)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엔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 선박 운항 및 탄소배출 저감을 지원하는 핵심 설비
ESD (Energy Saving Devices)	AMP, iCER, ORC 등 선박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연료 소비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을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 솔루션

· 파나시아는 최근 선박 폐열을 활용한 ORC 폐열발전 시스템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HMM, 삼성중공업과의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에너지로 회수하여 연료 소비와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어 파나시아는 기존 환경설비 사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됨

5. 사업현황

- ㈜파나시아는 부산을 대표하는 친환경 조선기자재 및 에너지설비 전문 기업으로,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요구되는 대기・수질 환경 솔루션을 개발・제조 하고 있음
- 1989년 창업 이후 계측기 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탄소포집저장장치, 연료 공급시스템 등 미래형 친환경 설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특히 선박 폐열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ORC(Organic Rankine Cycle)를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현재 HMM 및 삼성중공업과 함께 실선 적용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MO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 탈탄소화 수요 확대에 따라 차세대 에너지절감장치(ESD) 시장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됨
- 스마트팩토리, AI,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6. 생산 및 운영 현황

항목	내용	
본사 및 사업장	본사	Happy Work Campus: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사업장	① Energy Solution Center(제2사업장): 부산시 강서구 미음국제3로 98 ② Green EPC Center(제3사업장):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1633-3
해외 네트워크	해외법인	유럽(로테르담)・중국(상해, 대련)・일본(오사카) 해외 법인 운영
	Agent	전 세계 37개국 47개 파트너 네트워크 운영
기술 기반(특허)	- BWTS, Scrubber, OCCS, 친환경 연료공급시스템 핵심 기술 확보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350건 BWTS(172건), TLGS(11건), Scrubber(66건), SCR(36건), MSCS(4건), Anti Fouling(1건) FSS(3건), ACS(12건), iCER(4건), OCCS(28건), SMR(11건), ORC(2건)	

7. 기업 경쟁력 및 강점

구분	내용
기술 경쟁력	BWTS, Scrubber, OCCS 등 선박·해양 환경규제 대응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사용화
제품 포트폴리오	환경설비(BWTS·Scrubber·OCCS), 연료공급시스템(LNG·메탄올·암모니아), 계측·모니터링 시스템, 육상환경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제품군 보유
연구개발 역량	기업부설연구소 기반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선박 및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대응력	-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와 해외 법인 운영을 기반으로 영업·서비스 체계 구축 - 매년 평균 5개의 조선해양·에너지 분야 국내외 전시회 정기 참여하여 영업 및 아이템 홍보 진행
입지 경쟁력	부산 미음산단 내 본사·연구소·생산공장을 운영하며 국내 주요 조선소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와의 우수한 접근성 확보
성장성	- 무역의 날 1억불, 3억불 수출탑 수상 - 부산수출대상 수상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90% 이상 달성 -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생산성 275% 향상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분야 핵심 원천기술과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함.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임. 향후 IMO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 탈탄소화 가속화에 따른 탄소포집, 친환경 연료공급 및 폐열 회수 솔루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보유함	

8. 지속가능경영 및 동반성장 현황

구분	내용
ESG 방향	친환경 기술 기반 육·해상 탄소 중립 솔루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환경 분야	선박 배출가스 저감, 선박평형수 처리, 탄소포집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사회공헌	지역인재 육성(부산대·한국해양대 장학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부산 스타트업 멘토링 등), 사회복지 지원 및 기부활동(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임직원 자율 봉사활동 '파나누리' 개설,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인재경영	인재 육성 기금 조성하여 산학협력 연구 사업 진행 및 친환경 에너지 설비 분야 연구를 위한 계약학과 운영(부산대학교 그린설비융합전공), 사내 교육프로그램 추진
동반성장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및 우수 협력사 포상 등 협력사·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상호 성장 추구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 건의 현황

○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에 따른 **실증 인프라 부족**

–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이 친환경 체제로 급변함에 따라 **기자재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장기 성능을 검증할 테스트베드(Infra)부족**으로 기업들이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공급 실적) 확보**에 어려움

○ 제조 신기술 융합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비상**

– 부산시는 철강·조선기자재·신발·제약 등 중소·중견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피지컬 AI 실증 거점」** 임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기술 수요 대비 지역 내 **현장형 실무 인력 및 청년 유입 체계 부족**

○ 물류·운송 Infra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

– 조선·해양 제품의 초대형화 추세에 맞춰 해상운송 용이한 **대규모 생산 및 야적 공간 확보 필수적**임. 또한, 제품의 육상 이송으로 인한 **2차·3차 내륙 수송비, 상하차 및 제품 손상 리스크 가중**

□ 핵심 건의사항

○ **친환경·스마트 선박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시급**

– **친환경·스마트 기자재의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공동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건의

○ **대형 해운사(HMM) 이전 연계 상생협력 방안 마련**

– 해운사&기자재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부산시 차원 세재지원** 등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자재(기후테크 사업)기업으로의 발주 유도

○ **AI 자율제조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및 정착 지원**

– **지역 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보조+세재감면(근로·지방소득세 등)+정착지원금(주거비·교통비)]을 결합한 **'통합형 패키지' 지원**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에 선제적 대응**

○ **신항 배후단지 제조 및 물류 부지 확대**

– 약 30만평 신항 배후단지 부지 계획 中 **생산·조립을 위한 제조·물류 부지의 비율 확대** 건의(현 계획:10%미만)

□ 기대 효과

○ 조선해양기자재 상생 플랫폼 활성화

– 지역 대형선사&기자재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기자재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 선점**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안착

–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구직자들의 세제 혜택**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고령화 해소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로 부산 수출 실적 견인

– 신항 생산·물류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연간 수십억 원 물류비 절감**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부산시 수출 실적 견인**